

순천 조곡교 교통정체 '숨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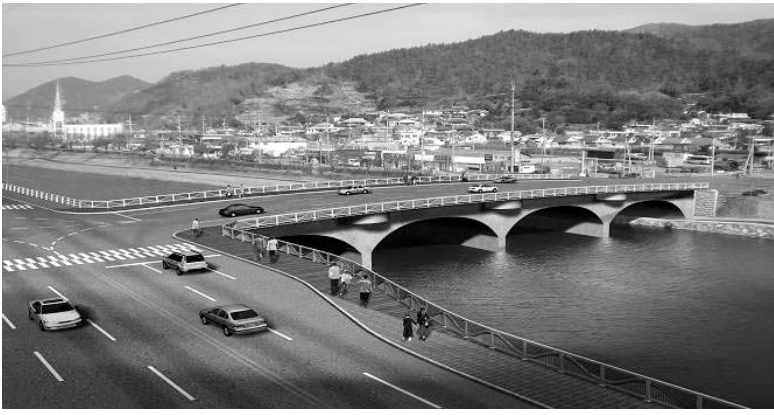
市, 10억 투입...인도 포함 6차로 확장·차선 폭 넓혀

순천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결로 인 조곡교의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인도를 차도로 활용해 5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2.8m의 차선 폭을 3m로 넓히고 강변로에서 우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갑도>

또 조곡교의 난간은 동천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보행성이 양호한 인도교를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조곡교 차량정체는 근거리인 봉화터널 이용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조곡동에서 용당동으로 직결되는 도로가 없어 봉화터널을 빠져나와 조곡



교를 이용하여 강변로를 우회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의 대형화로 차선 폭이 3m 이상 돼야 하나 조곡교는 좌회전 대기 차로 확보를 위한 한계로 2.8m로 돼 있어 차량회전시 옆차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차로 폭을 3m로 확장하고 그동안 제기돼 왔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유류비 80% 절감 '지열난방' 확대

농어촌공 순천광양여수지사

광양시 봉강면에 위치한 화재 육묘장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난방시설이 설치됐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손태현)에서 위탁시행하는 방식으로, 온실면적 3000㎡(1000평)의 지열난방을 위해 사업비 3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지열 난방시설은 지중열 교환기,

지열 히트펌프, 냉온수 순환펌프 등의 설비를 설치해 지중열을 시설원에 냉·난방 열원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면세유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절감돼 난방의 90% 이상을 유류에 의존하는 시설원에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지방 자치단체(순천·광양·여수시)와 유기적인 상호협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설원예와 축산, 수산으로 확대시설 방침이다.

순태현 지사장은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에 축산, 수산관련 업체의 경영부담 경감과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 천 지 사	(061)746-8111
여 수 지 사	(061)653-8444
광 양 지 사	(061)792-8111
고 흥 지 사	(061)842-2121
보 성 지 사	(061)853-1190
구 려 지 사	(061)783-8111

"섬진강 기차마을은 어린이 세상"

곡성군 내달 5일 '한마당 축제'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어린이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기차 타고 동심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새롭게 선보이는 바이킹 등 9종의 놀이동산과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동물농장, 각종 체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 마을과 섬진

강 자연학습원에서 짚풀공예 만들기, 디딜방아, 맷돌 돌리기 등 프로그램 운영해 시골의 할머니집을 연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조리 과학고 학생들이 선보이는 쿠키와 케익, 각테일 만들기 등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차마을이 단순한 관광거리가 아닌 기차, 장미, 놀이랜드, 섬진강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종합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과 향토음식을 판매해 곡성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소득 창출로 든 버는 상업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수 굴 양식 울 250억 소득

플랑크톤 양 풍부 평년대비 2천t 추가 생산

여수지역 올해산 굴 양식 생산량이 평년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에서 열린 올해산 굴 양식생산현황 보고회에서 이 지역 굴 양식시설에서 생산된 올해산 굴은 3만2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관내 굴 양식시설은 가막만, 장수만을 중심으로 967ha의 면적에 1만1천여대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3만

t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올해에는 100m 1대당 평균 3t 정도가 생산됐으며 납작벌레 등 해적생물의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가소득이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과학원은 올해산 굴 작황이 초창기 고수온으로 인한 대량 폐사가 발생하면서 흉작을 예상했으나 먹이

생물인 플랑크톤의 양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황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비만도가 충실해져 품질이 향상되면서 전년에 비해 높은 가격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어가소득도 예상치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굴 인공종묘의 시험양식을 통해 굴 양식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양식어가들과 함께 양식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생산력 향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모기 쫓는식물 '구문초'

순천시 어린이시설 보급

순천시는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허브 식물인 '구문초'를 시범 식재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허브 식물인 '구문초'를 농경지를 끼고 있는 저류지 자연마을 등 2개소와 모기에 취약한 어린이 시설 3개소에 보급하기로 했다.

구문초는 장미보다 더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모기가 싫어해 사방 7~15m 정도 범위 내의 모기나 파리 퇴치 효과가 있다.

일과 즐기 등은 말려서 목욕재, 배갓속 재료, 화장품, 향수 등 원료로도 사용된다.

시는 약취제거와 유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유용 미생물을 웅덩이이나 하수구에 투여하고,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사는 미꾸라지를 모기서식지 심지에 투여하는 등 친환경 유해 위생해충 퇴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구례경찰 "담장 허물고 한발 다가갑니다"

구례경찰서(서장 이재승)가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경찰은 최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담장을 허물고, 구례군목민 산수유 나무와 야생화 등을 심어 화

단을 조성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화단에는 친환경적인 가로등과 함께 스피커를 설치, 점심시간 등에 음악 방송을 들려주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A씨는 "그동안 경찰서의 눈

은 담장 때문에 위화감 등을 느끼고 있었는데 구례경찰이 과감히 담을 허고 음악 방송을 들려주고 있어 주민과 경찰이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승 서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한 사무환경을 만들어 주민이 미소짓는 구례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전 북

임실에 '119 안전 체험센터'

국비 221억원 투입...2012년 8월 개관

전북 임실에 호남·충청지역을 아우르는 '119 안전체험 센터'가 건립된다.

특히 안전체험센터가 건립될 경우 연간 18만여명 이상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임실지역 대표 관광브랜드인 치즈밸리 등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는 11일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부지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을 비롯 김완주 지사, 김호서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강완득 임실군수 등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9 안전체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건립되는 119 체험센터는 부지 9만8154㎡, 연면적 5876㎡ 규모로 2개동 20개 시설을 국비 110억원 등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입, 오는 2012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관동의 경우 화재를 비롯해 지진, 방사능, 자동차 전복, 엘리베이터 사고 등 소방·재난·생활과 관련된 안전 체험시설로 꾸며진다. 특별동에는 화재 등 소방관의 하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동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불 박물관, 어린이 소방서, 병원 체험의 집 등 어린이전용 체험마을 9개동이 시설물의 3분의 2크기로 어린이들 눈높이를 맞춘 동화적인 체험 시설로 세워진다. 이와 함께 센터는 소방관계자 및 재난관련 기관단체 등의 재난관련 종사자 전문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센터건립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인프라 확충됨에 따라 체험시설이 없는 호남과 충청권 지역주민을 끌어들이는 선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은철기자 k0765@

'내 지방 이전' 내달 결론

정부, 내주 특위 마무리...경남·전북 분산 배치 유력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이전 방안을 내달 중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선정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역 간의 갈등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LH공사 이전은 최대한 빨리 심의를 오는 5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에 공사 이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를 심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

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는 다음주 중 LH공사 이전 안을 평가할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다음달 LH공사의 지방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남과 전북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LH공사는 분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정부가 영남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공사를 경남으로 이끌 이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김완주 전북 지사가 사발 투쟁을 벌이는 등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경남으로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 경우 당초 경남에 이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을 보상 차원에서 전북에 보내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공사는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북(전주 혁신도시)에 각각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 LH공사로 통합되면서 경남과 전북이 일괄 이전과 분산 배치를 각각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연방뉴스

전북 수산자원 육성 13억 투입

넙치 등 550만 마리 종묘 방류기로

전북도는 올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50만 마리의 수산종묘 방류 등에 총 13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군산, 고창, 부안군 등 연안해역에는 비교적 정착성이 강하고 어업인과 해상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넙치, 우럭, 감성돔, 전복 등 21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군과 같이 뱀,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공공수면에는 농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인 붕어, 뱀장어, 통자개, 참게,

다슬기 등 33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광철 해양수산과장은 "방류한 어린 고기들이 2~3년 후에는 어미고기로 성장하면 많은 낚시꾼을 유치,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86억3200만원을 들여 넙치·우럭 등 고부가가치 어종 1억600만마리를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에 '돌연변이 식물원'

2014년까지 2000여 품종 전시관 조성

정읍에 돌연변이 품종들을 보존·전시하는 식물원이 생긴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가 2014년까지 1만8000㎡ 부지에 돌연변이 수목류 2000여 종을 보존·전시하는 '돌연변이 테마 자원식물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식물원에는 수목류 육종 시험과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관상수 수목, 과수류 육종시험포, 식물 시험포, 다양한 무궁화를 모은 무궁화 자원포 등이 마련된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수집한 단풍나무, 자생차, 지역 특산 수목류, 베리류, 과수류와 함께 특히 희귀 돌연변이 식물자원도 보존된다.

방사선과학연구소는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난, 장미를 비롯한 화훼류와 분재용 무궁화, 자생식물 등 30여 종을 개발했으며, 돌연변이 실용화시설인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를 건립 중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도, 대학생-기업 만남 추진

전북도가 지식경제부와 손잡고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을 대학생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지역기업과 대학생 간 만남 사업인 '희망이음'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7일 도청 2층 상설세움관에서 대학 취업관계자를 비롯해 전북 테크노파크, 지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희망이음 사업'은 기업 20개를 선정해 대학생 600여명의 탐방단에게 기업을 직접 체험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참여 대학생 600여명을 모집한 후 5월에 우수기업 20여개를 선정, 6~8월에 기업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군산 배후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세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6일자로 군산 배후지구(옥산·회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세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고시일에 맞춰 그동안 경제청에서 처리하던 배후지구 관련 사무를 군산시에 인

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 허가, 농·산지 전용허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공장 설립 등록, 옥외광고물 신고 등 배후지구에서 발생하는 677개 세부사무는 군산시에 처리된다.

/전북취재본부=박승식기자 nogusu@

국일 방직, 정읍에 3·4공장 2개 동 증설

오는 2014년 국내 최대 면사 생산업체인 (주)국일 방직이 정읍 태인 농공단지에 5만1500㎡에 제3·4공장 2개 동을 증설한다. (주)국일 방직은 1977년 설립해 면사를 생산·수출하는 조지현 본 공장에 이어 지난 2006년 정읍 하북동 제2산업단지에서 제1·2

공장을 신축했다. 2010년 기준 연 매출액은 1620억원, 고용인원은 420명이다. 증설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3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연간 총 3700억원의 매출액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지리산 소리쉼터 '토요 판소리' 개최

남원시는 지리산 둘레 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상수기인 봄·가을 매주 토요일에 운봉 송흥룡 생가 소리 터에서 지리산둘레길 국악 상설공연 '소리쉼터 토요판소리'를 개최한다. 남원 시립국악단(단장 김형만 부시장) 15명이 매주 토요일 고

정 배치돼 오전·오후에 각 1회씩 판소리, 기악독주, 민요 등을 선보인다. 이번 상설공연은 전통 국악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남원국악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할뿐 아니라 둘레 길을 찾는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

'김제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이 7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지역기관 단체장과 농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제농민회(회장 박흥식)와 여성농민회(회장 이보연)가 마련한 이날 영농발대식은 풍물패의

김놀이를 시작으로 올해 농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고사와 체육행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흥식 회장은 "농민들이 올 농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대풍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